

요약

2011년 3월 중순에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초기의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이 재난의 여파로 인해 일본은 물론, 전세계가 계속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일본의 생산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미치는 과급효과 등)은 인도적 재난과 일본의 기반시설 및 자본 스톡에 대한 피해의 규모를 고려할 때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시아 전체로 볼 때는 수출과 국내 수요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경제가 거의 회복되었고, 2010년에는 8.3퍼센트의 성장을 달성했다. 수출은 글로벌 투자 사이클과 아시아와 다른 지역 신흥국들의 강력한 최종 수요로 인해 증가했다. 또한 국내 수요도 견실하게 유지되어, 여전히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민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민간 수요는 투자와 소비가 광범위하게 증가함으로써 촉진되었다. 투자는 생산 능력의 제약을 극복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는 고용, 임금 및 생산성 증가에 의해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서, 2011년과 2012년에 거의 평균 7퍼센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과 인도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두 나라의 경제는 향후 2년 간 각각 9½퍼센트와 8퍼센트 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인도의 성장은 특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그리고 전세계)에 중요한 과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호주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광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성장의 주요 추진력이 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퍼센트와 3½퍼센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전망과 관련된 위험은 긍정 및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분기 동안 선진국들의 국내 민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함으로써 글로벌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그러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사태(글로벌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와 일본의 지진 관련 재난이 미치는 과급효과와 같은 새로운 하방 위험들이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금융이 여전히 취약하여 계속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

아시아가 급성장함에 따라 이 지역 전체에서 상품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자산 가격에 대한 압박은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신용 역학과 특정한 부문의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CPI) 인플레이션은 주로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2010년 10월 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물가 상승은 근원 인플레이션에도 과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 지역 전체의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경기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여 더욱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정부가 경기 순응적 통화 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안정적 성장과 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보다 낮고, 대부분의 경우 실질 기준으로 마이너스이다. 인플레이션은 2011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이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거시경제를 더욱 긴축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012년부터는 다소 감소할 것이다.

긴축 정책의 시행은 2010년의 첫 3분기 동안 자본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자본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본 유입은 대체적으로 2010년 10월 이후에 완화되었으나,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는 아직도 매우 많은 자본이 유입되고 있어 정책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본은 이 지역이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위험 선호성의 증가로 인해 2011년과 2012년에도 아시아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자본 유입이 “갑자기 중지”되거나 역으로 유출되는 경우 자본 유입의 변동 가능성과 관련된 경제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자산 가격이 급등할 위험과 자본이 역으로 유출되어 경제가 타격을 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를 취했다. 제II장에 설명된 것처럼,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 유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고 단지 보완책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한 국가에서는 통화 긴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추가하여 환율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환율을 인상하면 통화 긴축 상태를 유지하고 정책 금리 인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재정 건전화로 시행할 여유가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미래의 충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거시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중기적으로 전망할 때, 아시아는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 전망을 개선하여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고, 국내 민간 수요를 강화하여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III장에 설명된 것처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역내 수출(아시아 “공급 체인”의 일부로 중국에 수출되는 중간 투입재 포함)을 통해서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아시아는 여전히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수요에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 지역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선진국의 수요가 증가할 때 대외적인 균형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IV장에 설명된 것처럼, 여러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LIC)와 태평양 도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자본 유입의 증가와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